

학생_수기-6

학업중단 예방 사례 응모분야						
지도자 및 교원				학생		
				■		
사례명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 준 학교					
응모자	학교	○○○○○○○	학년		성명	○○○
학업중단 위기원인	대인관계의 두려움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일자(기간)	'24.03.18.~'24.10.18. (16주간)					
<p>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본래도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었지만, 긴 코로나로 인하여 내성적인 성향은 더 심해졌고,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 얼굴 빨개지고 말도 어버버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나에게 고등학교 입학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새로운 학교를 가서,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부터가 너무 숨막히게 힘들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계속적으로 학교를 빠졌고, 이로 인해 선도위원회를 두 번이나 열렸는데도 학교에 나가지 않아 세 번째 선도까지 갈 상황이 되었다. 세 번째 선도를 하면 퇴학이기에 자퇴를 고민하던 중,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나에게 대안학교를 권유하셨다.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지만 자퇴와 대안학교밖에는 선택지가 없어 두려운 마음으로 후자를 선택하였다. 1학년 2학기! 이렇게 나에게 대안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이 다가왔다.</p> <p>대안학교에 가서도 모든 부분이 쉽게 좋아지지는 않았다. 나는 여전히 적응을 하지 못하였고 낮을 가리며 말도 잘 안했고, 학교 또한 종종 빠지곤 했다. 하지만 인원수가 적은 대안학교에 특성상 선생님들이 우리 하나 하나에게 신경을 잘 써주셨고 모든 면에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2학년이 되면서 친구들도 하나둘씩 생기고, 재미난 체육시간도 참여하고, 난생 처음 해 보는 진로체험도 하면서 학교를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심각한 낮가림이 사라지고 내가 느끼기에도 점점 말도 많아졌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은 학교에 등교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던 와중 학생회장 선거기간이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나에게 한 번 나가 보라고 추천해 주셨다. 아직 어디 앞에 나가서 말을 하기엔 부끄러웠지만,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았고 그 결과는 좋았다. 그렇게 내성적이었던 나는 대안학교에서 부회장이 되었고, 학생회를 운영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p> <p>이 학교가 좋았던 나는 학교생활을 조금 더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고 싶어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학교도 점점 더 열심히 다녔다. 그렇게 학생회를 하며 만든 가장 큰 일은, 새로운 동아리 밴드부를 만든 경험이다.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학생 때 밴드부에서 활동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 부분을 학교에 건의했고, 선생님께서 흔쾌히 도와주셔서 밴드부 창립멤버가 되었다. 원래 드림을 배웠던 경험을 살려, 드림을 맡았는데 다른 선배와 친구들도 각자 역할을 찾아가며 밴드부의 자</p>						

리를 잡아가는 것이 큰 보람이었다. 그러면서 학교생활이 한층 더 즐거워졌고, 학교 다니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던 내가 이제는 주말이 빨리 지나고 월요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학생이 되었다.

되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적극적인 학생으로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학교에서 각종 다양한 체험활동, 특히 직업체험이 나에게 큰 동기부여를 주었던 것 같다. 꿈이 없던 나는 많은 직업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며 생각의 범위가 확장되어 갔고, 점차 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워가며 점점 적극적이고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보냈다. 심지어 학교 수련회에서는 장기자랑까지 나가 춤추고 노래도 불렀다. 난생 처음 하는 일이라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고 노래도 부족했지만 끝나고 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렇게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되었다. 새학기 2주동안 본교를 다녀야만 하였다. 처음 입학할 때와 많이 달라진 나는 본교를 다닐 때도 1학년 처음만큼 힘들지 않았다. 물론 살짝 지치고 힘들었지만 훨씬 당당해진 나를 느낄 수 있었고 내가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이때 대안학교가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 다니는 내 학교, 이 대안학교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지 느낄 수 있었다. 빨리 어른이 되어 학교가 다니기 싫던 나에게 평생 학생이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줄 정도로 이 학교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내게 정말 즐거운 학생시절을 선물 해 주었고 사랑하는 이 학교를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소원은 내 마지막 학창 시절은 멋있고, 행복하게 끝내고 싶다는 것이다. 나의 밴드부원들 또한 나처럼 본교적응도 힘들어했고, 낮가림도 심한 아이들이었다. 그렇지만 이젠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며 의지해가며 수료식 날 마지막 밴드부 공연을 위해 매일 고민도 하고 연습도 한다. 나는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려준 밴드부에서, 삶이 뜨거워질 정도로 열정을 불태워가며 마지막 수료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곳 대안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지만, 여기를 떠난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딱히 미래에 대한 생각도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던 내가 대학이라는 꿈이 생겼고 하고 싶은 직업도 생겼다. 그리고 내가 얻은 가장 큰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날씨가 좋은 날 나무가 바람에 살랑살랑 거리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았고, 날씨가 흐리며 비가 와도 운치 있는 분위기를 즐기며 웃었다. 이곳에서 받았던 교육과정은 내가 졸업을 하고 이 학교를 떠나도 내 마음 한구석을 항상 따뜻하게 비추어 줄 거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의지가 되었던 선생님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을 보낸 이 곳, 대안학교가 나는 참 좋다.